

문명 전환을 위한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

정 수 복 / 사회운동연구소장, 본지 편집위원

“현재의 생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영국과 같은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반을 정복해야 했다. 그렇다면 우리 인도와 같이 큰 나라가 영국과 같은 생활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착취해야 한단 말인가?”

— 인도의 어느 여성 환경 운동가

베트남 청년의 꿈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청바지와 MTV로 상징되는 표준화된 소비 문화가 세계화되고 있다. 전통 문화가 파괴되고 획일주의적 문화가 지구촌에 범람하면서 젊은이들은 대중 문화의 홍수 속에서 주체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즐거운 로봇’(cheerful robot)들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기도 한다.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를 행복으로 여기는 오늘날의 물질주의적 행복관은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포함한 정보통신 수단의 발전을 통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기업화된 대중 매체들은 현실적 삶과 동떨어진 이미지를 끝없이 전달하면서 생각과 행동을 분열시킨다. 미국 뉴욕 중산층의 거실 장면이 인도나 베트남 농촌의

텔레비전 화면에도 똑같이 전달된다. 현실과 이미지의 극단적인 거리 속에서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들은 눈앞에 전개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막연한 환상을 품는다. 텔레비전 앞에 앉으면 자신이 밭 딛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 먼 곳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욕망이 불타오른다. 아니, 그 이전에 그들은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헐벗은 개도국의 청소년들에게 부자 나라의 화려한 생활 양식은 선망과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헛된 소비의 열망을 부추기면서 허무감과 좌절감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때로 그러한 좌절감이 방황과 분노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들은 그래서 자신의 땅에서는 디즈니랜드나 맥도날드의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자 나라로의 탈출을 꿈꾼다. 그래서 합법적·불법적 이민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으며 뒤통을 주고서라도 해외 취업을 하려고 애쓴다.

얼마 전에 베트남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호치민시 남쪽의 '미토'라는 메콩강의 섬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안내를 맡은 베트남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갖고 있으며 이메일 주소도 가지고 있다. 그가 가진 문명의 이기들은 자기가 속한 좁은 범위의 사회를 넘어서 더 먼 곳과 소통하고 싶은 그의 욕구를 반영한다. 그가 느끼기에 베트남 사회는 너무 억압적이다. 가능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한다.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대학생들도 거의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등 과거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개혁과 개방을 내세우며 세계적 규모의 시장 경제에 편입될수록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이른바 후진국 청년들의 공통된 꿈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오염시키는 정도로도 지구는 벌써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베트남과 미얀마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을 모델로 하는 풍요로운 생활 수준을 누리려고 한다면 지구는 얼마 가지 않아 중병에 걸려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꿈꾸며 온 국민을 동원하여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근대화론에 입각한 사회 발전 모델을 대치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에 유럽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하는 근대화론에 대한 대항 이론은 종속 이론이었다. 그러나 종속 이론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불평등 그리고 후진국 안의 불평등과 독재 정권의 지속은 잘 설명하였지만 전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태 위기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이론이었다. 이제 지구적 차

원의 생태 위기 앞에서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사회 발전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¹⁾ 그리고 그러한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은 자연 파괴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재와 같은 세계화와는 다른 모습의 세계화를 추구할 것이다.

기존의 경제 구조와 정치 체계는 지속적으로 파괴적 경쟁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과소비를 조장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착취하는 체계이다. 그래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은 발전과 성장이라는 기본 논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 구성의 원리를 모색한다. 돈과 자본의 논리, 효율과 경쟁과 속도의 논리, 욕망의 논리, 소비와 쾌락과 이기심의 논리를 넘어서 연대와 협력의 논리, 상생과 조화의 원칙, 창조의 동기에 기초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과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근대화 모델의 해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사회 발전 모델은 경제 성장을 지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근대화·서구화·세계화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더 빨리, 더 높게, 더 멀리’라는 근대 올림픽의 구호는 이러한 발전 모델의 정신적 분위기를 잘 표현한다. 자본주의·산업주의·국가주의·제국주의·식민주의 세력은 무엇보다도 ‘더 많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존의 근대적 발전 모델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사회 발전 모델이 만들어낸 자연 파괴와 인간 상실의 폐쇄 회로를 해체하고 주체적이고 성찰적인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존의 사회 발전 모델은 다윈의 진화론을 변형시킨 사회진화론의 입장에 서 있다. 그것은 겉으로 내세우는 이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미국·유럽·일본 등을 선진국으로 여기고 그것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원숭이 발전 모델이요 앵무새 발전 모델이다. 이미 정해진 하나의 폐쇄 회로를 달리는 ‘발전’이라는 이름의 기관차는 1등차·2등차·3등차·화물차의 순서로 미국·유럽·아시아·남미·아프리카가 연결되어 달리는 거대한 기차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지난 40여 년 동안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왔다. 그것은 거부할

1) 달리는 열차에서 객차의 배치 순서를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일단 달리는 열차를 멈추게 해야 한다.

수 없는 기본 가정이었다. 그래서 미국·유럽·일본에는 열등감을 느끼고 인도네시아·네팔·케냐·우루과이에게는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된다. 국민 소득의 수준으로 모든 나라를 쉽게 서열화하는 획일주의적 발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온할 뿐만 아니라 정신병적인 징후로 여겨진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진국에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려는 의식과 정신의 식민지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어야 하고 나는 미국 사람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의 심층부에 자리잡게 된다. 이미 현재의 선진국 모습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이 주어져 있으므로 후진국 사람들은 따로 미래 사회를 꿈꾸어 볼 필요가 없었다.

한국 사회의 경우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자원과 자본을 권위적으로 배분하고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국정의 제일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 목표는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 제일주의의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른다. 경제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놓게 되면서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훼손되고 파괴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평등이라는 가치가 계속 무시되고 유보되었으며, 자연 환경과 인간성의 파괴라는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경제 성장 제일주의의 뒤에는 언제나 경쟁의 사회적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경제 성장 제일주의 담론의 뒤에는 항상 경쟁력 제고 담론이 뒤따라 온다. 승자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항상 타인의 머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하며 강한 자만이 살아 남는다는 의식이 아주 일찍부터 머리 속에 주입되고 생활 속에 구현된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승리 이데올로기로 자신을 끊임없이 무장해야 한다. 경쟁에서 승리한 삶만이 성공한 삶이다. 입시에서 취직에서 승진에서 도박에서 경기에서 어디에서건 승리만을 추구할 뿐이다. 그러나 무한 경쟁의 원리로는 새로운 성장과 행복의 지표를 만들 수 없다. 타인에 대한 전투적 긴장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치고, 공격적이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 현실에서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근대화 모델은 이제 해체되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선 순위가 절대적인 순위가 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환경·사회복지·인권·남녀 평등·문화·교육·의료·사회복지·아동과 청소년·노인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을 모

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 발전 모델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근대 사회과학의 틀 안에서는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의 모색이 불가능하다. 근대화 이론을 제공한 사회과학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과학이 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대 사회과학의 위기

오늘날 인류가 맞이한 생태 위기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양의 근대 사회는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낙관적인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데카르트와 베이컨으로 대표되는 기계적 세계관이다. 자연 세계를 하나의 기계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그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의 의도에 따라 조작이 가능한 세계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자연과학의 패러다임 안에서 사회과학도 만들어졌다. 경제학·정치학·사회학 등의 주요 패러다임들도 대상을 객관화하고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사회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사회'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근대 사회과학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두 가지 중요한 고리를 잃어버렸다. 하나는 인간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개개인의 자아와의 관계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로서, 오늘날의 환경 위기를 가져 왔다. 두 번째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중심주의로서, 자아와 영혼의 상실에 따른 인간성의 황폐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단지 외적인 발전을 위해 내적인 발전을 무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물질적 발전이 우리의 정신 활동을 침해하지 않게 하고, 자신을 더 나은 인간으로 가꾸어 가는 자아와의 대면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인간 사회와 자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자아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회과학이 그러한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 자연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 삶과, 인간 개개인이 수행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명상·수련이라는 내면으로의 여행이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부각될 것이다.

근대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규범적인 과학에 도달한 것이 경제학이다. 우리가 아는 근대 경제학은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경제적 인간)로 상정한다. 여기에서

인간 개개인은 개별적인 단위이며,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고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 존재로 인식된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근대 경제학의 인간관이다.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과학은 이러한 근대 경제학의 인간관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²⁾ 사실 인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밖에 없는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에서 보듯이, 어떤 상황에서 인간의 어떤 특성을 강조할 것인가는 사상가나 이론가의 세상과 인간을 보는 관심과 지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맹자가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면서 그러한 속성을 어떻게 계발하고 발전시키고 유지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한비자는 인간을 양심은 있으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개인의 도덕적 수양보다는 인간의 본성이 사회적으로 선이 될 수 있도록 법을 잘 만든 다음에 법을 엄정하게 시행하면 사회가 저절로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새로운 사회과학은 인간을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소통과 대화, 상호 공존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생명과 자연, 지구와 우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대안적 세계관과 인간관

오늘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는 자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본다. 먼저 그릇된 자아는 다른 이의 권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긍정적 자아는 타인을 도와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고 느낀다.³⁾ 긍정적 자아는, 세계는 모든 생명체와 존재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올바른 삶이란 그릇된 자아를 약화시키고 긍정적 자아를 강화시키는 삶이다. 다른 생명체에 대해 자비심을 발현하는 것이다. 불교의 연기설은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의 그물로 이어져 있다고 본다. 여기서 너와 나의 구분

2) 프랑스의 사회과학자 알랭 까이에(Alain Caillé)는 '사회과학에서의 반(反)공리주의 운동'이라는 제목의 학술지를 통해 이러한 생각을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3) 달라이 라마, 공경희 옮김(2000),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문이당: 199면.

에서 비롯된 개인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베트남 출신의 평화주의 스님인 틱낀한은 이러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만일 당신이 시인이라면
당신은 이 한 장의 종이 안에서
구름이 흐르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없이는 비가 없으며,
비 없이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없이 우리는 종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종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름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구름이 이곳에 없으면 이 종이도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과 종이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종이 안을 더욱더 깊게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햇빛을 보게 됩니다.
햇빛이 그 안에 없다면 숲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햇빛이 이 종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종이와 햇빛은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
이 모두가 없이는 이 한 장의 종이가 존재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 더 깊이 들여다 보면 우리들이 그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우리가 그 종이를 보고 있을 때
그 종이는 우리 지각의 일부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이 종리와 함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지 않은 것 하나라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공간, 지구, 비, 땅 속의 광물질, 햇빛, 구름, 강, 열 등
모든 것이 종리와 함께 공존합니다.
그 까닭으로 나는 공존, *interbeing*이란 단어가

사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얇은 종이 안에서 그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 틱날탄, 『평화로움』 중에서

우주 만물은 어느것 하나 서로 의존하고 인연 맺지 않은 것이 없다는 불교의 연
기론은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주요한 금과옥조였다. 간디는 윤리와 영감과 일상의 삶
을 혼쾌히 어우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간디의 경제 사상이 지닌 중요한 미덕은 자
유주의 경제학처럼 선호하고 선택하는 경제적 주체를 개인으로 인정하면서도 ‘관계
의 윤리성’을 각별하게 강조했다라는 점이다.⁴⁾ KDI 대학원 임길진 원장이 쓴 ‘먹이
사슬’이라는 시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다.⁵⁾

“나는 오직

긴 사슬의 한 고리.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고

비가 물이 되어

나는 그저

한방울의 물.

나는 단지

긴 끈의 한 오라기.

푸른 잎이 낙엽 되고

4) 쾌락과 탐욕에 바탕한 개인의 철저한 이윤 추구를 반대했던 그는 ‘무소유적 개인주의’를 역설하였다. 부나 재산, 심지어는 육체까지도 잠시 맡아둔 데 불과하다는 ‘보관인 정신’은 간디의 무소유 사상의 핵심을 집약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지트 다스굽타, 강종원 옮김(2000), 『무소유의 경제학』, 솔.

5) 임길진(2000), 『새천년의 도전과 전략적 지도자의 길』,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엮음, 『카오스모스 시대의 생태적 미래 사회 구상』(2000년도 전국 환경 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한국불교환경교육원: 14면.

낙엽이 거름 되고
거름이 나무 되고
나무가 잎이 되어
나는 그저
한 나무의 잎사귀.

나는 겨우
큰 축대의 한 돌뿌리.
씨가 나무 되고
나무가 꽃이 되고
꽃이 열매 되고
열매가 씨가 되어
나는 그저
작은 씨."

이러한 인식은 도구적 이성을 활용하여 만든 전문가적 지식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세상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전체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생태 위기와 인간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세계관 차원에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그 첫 단계는 세계와 우리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되며, 과학기술과 지속적 경제 성장을 믿는 근대의 물신주의적 신화로부터 깨어나는 것이다.⁶⁾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의 모색

문명 전환 운동은 수세기 동안 뿌리내린 경제 성장 제일주의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사회 운동이다. 성장 패러다임의 수호자들은

6) 정홍근(2000), 「환경 위기에 맞서는 교육 철학」, 『녹색평론』 2000년 3-4월호(통권 51호), 녹색평론사: 45면.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물질적 성장의 결과만을 가지고 구분하고 1등차와 2등차를 구별하고 폐쇄 회로 위를 달리는 열차의 모습으로 세계를 표상한다. 그 열차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에 대한 이렇게 잘못된 표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의 모색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적 맥락에서 볼 때 문명 전환 운동은 ‘우리도 한 번 잘 살아 보세’로 시작한 박정희식 발전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미 반세기에도 전에 백범 김구는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 김구, 『백범일지』 중에서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의 모색. 그것은 기존의 체제에서 특권과 안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하며 동시에 불가능한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 보건대 이미 많은 지식인들이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지식인이라면 분화된 전문 영역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⁸⁾ 그리고 이미 서양의 많은 지식인들이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는 지난 2000년 7월 5일 원주의 토지문화관에서 열린 ‘동북아 환경평화회의’에서 인간의 자유·평등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자유·평등을 요구하는 새로운 이념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새로운 이념이 여기서 말하는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이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스 킹은 “인류는 이제 근대성의 성취가 가져온 부정적 영향을 근본적으로 깨닫고 있다. 이성의 산

-
- 7) 권위주의적 국가 주도에 의한 대외 수출 정책을 기조로 하는 아시아적 발전 모델은 일본에 의해 시작되어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지금 거대한 중국과 인도가 그 모델을 따를 것인지, 대안적 모델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이 두 나라의 행보가 아시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8) 위르겐 하버마스, 이진우 옮김(2000), 『탈형이상학적 사유』, 문예출판사를 볼 것. 이 책에서 하버마스는 의사 소통적 합리성을 통해 철학이 삶과 사회의 나침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인 과학기술·산업화·국민 국가 등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 수단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인류가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지적하였다. 세계적인 환경 연구소인 미국 ‘월드워치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소장 또한 “지난 세기의 산업화 모델이 21세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인류는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의 필연성을 말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아무리 늦어도 21세기 중반이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 현재의 발전 모델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라는 경고 예언을 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비판만으로 문명 전환 운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문명 전환 운동의 형성은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실천해 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현실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대안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만들어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안 사회의 모델이 꼭 거창하고 추상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의 지구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작은 프로젝트들이 수없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양한 대안 운동을 찾아서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은 여러 영역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뒤집는 전복적 상상력에 의해 새로운 대안들이 여기저기서 실험되어야 한다. 그것은 대안 경제의 영역에서는 지역 화폐 운동·신용 조합 운동·윤리적 투자 운동 등 다양한 수준에서 비시장 경제의 영역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될 것이다. 대안 정치의 영역에서는 지금의 정당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이념과 조직 방식으로 움직이는 녹색당·여성 정당·지역 정당 운동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안 교육은 이미 대안 학교 운동이나 홈스쿨링 등의 형태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또 생태 공동체 등의 다양한 대안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태양력·수력·풍력 등을 이용하는 대안 에너지 논의도 활발하다. 대안 공동체 논의와 더불어 대안 건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으며, 자동차의 폐해가 계속 지적되면서 공공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 교통도 논의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존의 거대

과학기술 체계를 비판하는 대안 과학기술 운동도 나타나고 있다.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도 기존의 보건의료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대안적 의료 체계를 만들려는 문제 의식이 싹트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하고 소박하고 느린 삶의 양식을 추구 하는 대안적 삶의 양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로 수준과 범위가 다르지만 이처럼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을 벗어나 대안적 사회 체계와 대안적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실험들이 여기저기서 싹을 틔우고 있다. 그러한 실험들이 위기에 처한 현대 문명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문명 전환 운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분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사회 발전 모델의 기본 형태를 보다 분명히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체의 틀 안에서 부분적인 대안 만들기의 노력들이 갖는 의미가 항상 새롭게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꿈꾸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다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어 보아야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코르(Paul Ricoeur)는 “유토피아의 죽음은 사회의 죽음”이라고 하였다.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상실한 사회를 살아 있는 사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유토피아적 꿈을 지닌 사람들에 의하여 변화되어 왔다.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은 이제 생태적·사회적·영적 위기 앞에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고 실험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

정수복: 1955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교 사회학 석사, 프랑스 사회과학고 등연구원(EHESS) 사회학 박사.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였고 다양한 시민 단체 활동에 참여 하였음. 전 KBS TV '정수복의 세상읽기' 진행자. 현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본지 편집위원. 저서 『바다로 간 게으름뱅이』, 『의미 세계와 사회 운동』, 『녹색 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단체의 역할과 정책 과제』 등. 역서 『새로운 사회 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등.